

투데이 칼럼

진정한 소통

소통은 개인, 기업, 정부를 막론하고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은 시대이다. '소통(疏通)'은 '막힘이 없이 통함'을 의미하며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단어로 '함께 나눈다'는 라틴어에서 기원한다. 진정성 없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정보 전달에만 치중하는 소통은 안 된다. 배려나 경청이 소통에서는 아주 중요하고 상호 긍정 속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스피치학을 강의하면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소통과 스피치의 기본원칙은 진정성이며 이것은 가정, 기업, 단체 등 어디에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중요시 해야 하는 덕목이다. 탈뽕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성의 의미를 실천해야 하지만 이런 소통의 노력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전화, SMS(문자), 대화, 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킨십 등으로 실천해야 한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도 대화의 단념을 주선하고 접근할 때 어떤 어려운 소통도 해결할 수 있고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조직 내부에서도 미팅을 자주 하여 내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내부협력의 핵심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임을 믿고 생활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를 투명하고 빠르게 공유하고 각자의 의견과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노력할 때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진정한 소통이 될 때 직장, 단체, 기업, 공직, 가정

에 이르기까지 성공적 경영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피터 드러커 산업평론가도 '경영, 관리의 영역에서도 소통에 의하여 좌우된다.'라고 설명하였다. 필자도 전북지역에서 스피치학을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해 1년에 4개월 정도는 일반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문자, 전화, 편지, 보도(광고), 정보 공유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전북지역에서 스피치학 학습에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시킨 적도 있으며, 코

로나 시대에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려운 시기에도 강의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상호 인정하고 배려와 소통을 인내를 갖고 노력해보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내용을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하찮은 질문이라도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말의 의중을 잘 판단하여 서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한다면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도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화합과 보람을 갖게 하고 현대의 경영, 관리의 이미지 형성까지도 많은 도움이 된다. 현대는 소통과 감성 표현의 시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핵심인 진정한 소통학습(스피치학)을 실천해 보자.

사설

전주대 친환경 반도체 소재 개발

최근 전주대학교 연구진이 유연성과 투명성을 가진 친환경 반도체 기관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 일본에 이른바 '3국 특허'를 출원해 내년 등록을 앞두고 있다. 무색투명한 폴리이미드는 쉽게 접을 수 있어 휴대전화 액정으로 쓰인다. 열은 물론 휘어짐에도 강해 반도체 기관의 기본 소재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착용 가능한 전자 장치와 투명 전자 기기 등에도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주대 연구진이 개발한 '친환경 무색투명 플렉시블 기관'은 제조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불소 원소를 모두 제거한 게 특징이다. 투명성에 유연성을 더한 환경 친화적 소재로 반영구적인 재 활용이 가능하다. 전주대 탄소 연구소 장진해 교수는 "불소 원소를 완벽하게 제거해서 환

경친화성을 높였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국제시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국내뿐 아니라, 국가별 특허의 질적 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한 '3국 특허'로 미국과 유럽, 일본 특허청에 동시 출원해 내년에 등록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성과를 상용화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장 교수는 "대량 양산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이 전북 지방으로 유치가 돼야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오랜 시간 어렵게 이뤄낸 지역 대학의 연구 성과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혁신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갈수록 친환경 반도체 개발이 대세다. 전주대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유연성과 투명성을 가진 친환경 반도체 기관 소재 개발에 앞장서기 바란다.

전주 난개발 대책

2025년 을사년 새해 벽두부터 전주시내 난개발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시내 곳곳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려나기 때문이다. 보존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4년 12월 전주의 11개 공원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 풀렸다. 오는 7월부터는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10곳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민간특례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교개를 틀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혼잡과 주차난, 녹지 공간 부족 등 난개발도 우려되고 있다. 전주의 경우 10개 공원 지역 760만㎡가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20여 년 만이다. 지난 12월에는 덕진과 인후 공원 등 11개 공원 주변 650만㎡의 고도제한이 풀렸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이 노후주택들이라 소규모 주택 정비가 필요하다.

다. 용적률이든 고도든 모두 완화된다. 문제는 난개발로 교통 혼잡과 주차 공간 부족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녹지 공간이 사라지고 바람길도 막히면서 도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공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녹지 비율은 낮아지고 난개발은 더욱 커지는 도시계획의 난맥상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전주시는 개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부작용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발과 보존이 양립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역별로 차등을 주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미집행 공원 부지 2곳에 대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는 등 개발 수요는 앞으로 더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과제가 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덴마크 총리, 그린란드 지지 확보차 영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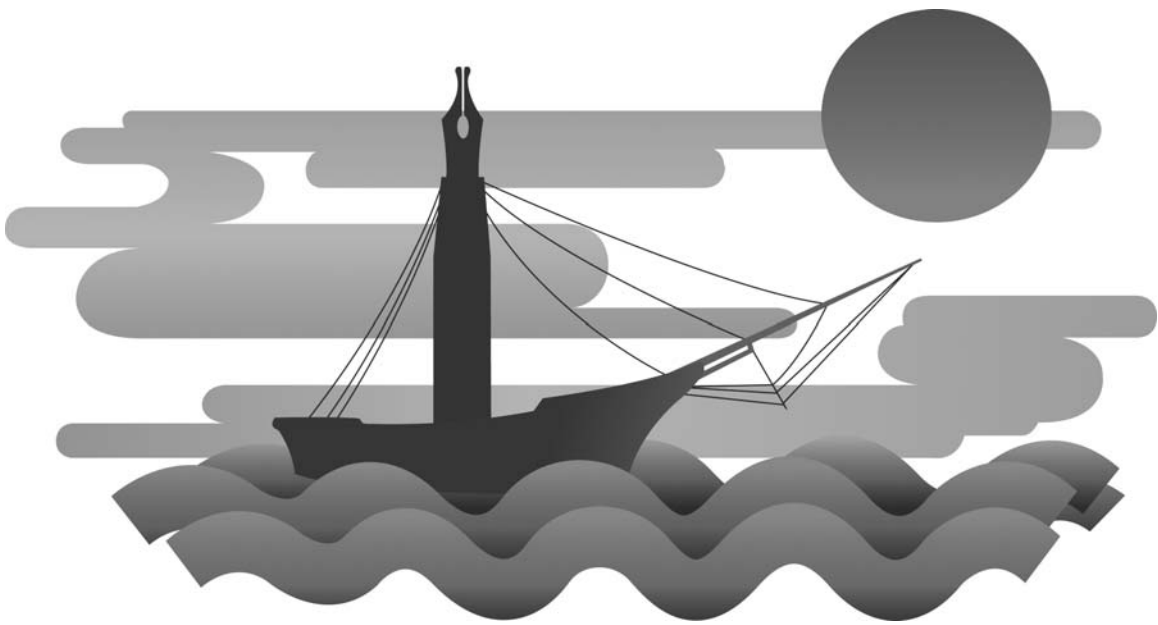


키어 스타머(오른쪽) 영국 총리가 4일(현지 시간)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와 관련해 동맹국 지지를 확보차 독일·프랑스에 이어 영국을 방문했다.

머스크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는 척 슈머 원내대표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현지 시간) 워싱턴 재무부 앞에서 열린 일론 머스크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통제하는 등 폭주 행보를 보이는 머스크가 자신이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OGE)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